

태평양 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56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 3일 금요일	Issue No.	1756
		Date	August 15, 1969: Fr

중공, 소련 사이에 유혈사건 무장병 월경을 서로 비난

(모스크바 8월 13일발 공동) 소련정부는 13일, 무장한 중공병이 신강지구로부터 소련의 극동 지구의 국경을 넘었는데, 소련국경경비군에의해 격퇴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동경 8월 13일발 공동) 13일의 신화사 북경전예에하면, 중공의무성은 동일 중국주재소련대사 관에 각서를 보내고, 소련군이 중국영 신강 위글 자치구 유민현철설곡제지구에 침입하고, 새로 유혈사건을 일으킨것에 항의하였다.

라스통신에의하면, 중.소군의 충돌은 신강성국경의 가자후 공화국 세미바라침크부근에서 일어나고, 소련군은 중공군장교 2명을 구속하였다.

중공측 사상자 수명

한편 북경방송에의하면, 탱크, 장갑차등 10대를 포함하는 소련군 수백명은, 신강성내 1마일이상 지점까지 진입하였다. 충돌에의해 중공국경경비대수인이 사상, 수부대가 소련군의 포위를 받았다. 동방송은 "소련군은 병력을 증강중이며, 또 충돌이 예상된다" 라고 전하고있다. 신강성은 중공이 탱크기를 저장, 미사일 실험을 하고있는 지방으로, 이전에도 중.소 국경분쟁이 일어나고있다. 중공정권의 초기, 소련은 동지방의 우라늄 자원을 목적으로 점령하였는데, 그후에 재굴권을 포기하였다.

북아일랜드의 종교분쟁에 군대가 출동

(아일랜드. 본든데리 8월 14일발, 에이피) 12일 이래 영국, 북아일랜드의 본든데리에서는 개오리 고도와 신고도가 충돌, 발포소동으로 10명의 부상자를 낸외에, 가혹 가옥소실과 상해사건을 내고있다. 이 "종교분쟁" 의 진압을 위해 14일 영국군이 본든데리에 출동, 한편 개오리고국의 아일랜드공화국도 본든데리의 서부국경에 군대를 출동시켜, 북아일랜드로부터의 난민을 원호 하고있다.

파리회담서, 미국대표가 공격적화를 비난

(파리 8월 14일발, 에이피) 파리 워대 회명 회담 30회본회의가 14일 개최되며, 미.남비에트남측 대표는 공산군의 공격재개를 "전쟁격화의 재회이다" 라고 비난하였다. 랏지 미수석대표는 "미국은 남비에트남으로부터 2만5천명을 철퇴중으로, 또 신규점령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북비에트남, 해방전선은 계획적으로 신공세를 준비중이다" 라고 말하였다.

(제2면에 계속)



(제1면으로부터 계속)

이에대해서 첸.남비에르넴임시혁명정부 (해방전선)대표, 토이 북비에르넴수석대표는 미군의 철퇴에대해서, "어위행위" "표면상의 거짓말" 등의 표현을 써서 이에 응수하였다.

달나라의 영웅을 마지하여 뉴욕의 대행진

(뉴욕 8월13일밤, 에이피) 여들의 햇빛에 종이 눈이 날르고, 아폴로 11호의 3비행사와 가족을 마지한 뉴욕은, 사람들파 환호소리로 메였다. 종이의 눈은 다리를 메도록 만이 뿌려졌으며, 부로드웨이는 "영웅의 제국"으로 변하였다.

국련본부 방문

암스트롱, 올드린, 코린스 3비행사는 열광적인 행렬의 도중, 국련본부를 방문, 암스트롱비행사는 머리에 사인 종이눈을 싣서버린후 "지구를 떠난다는 과제를 해결한 우리들은 지구상에서 공존한다는 과제도 해결할수있을것을 희망한다" 라고 인사하였다. 유탄트 사무총장은 3비행사와 페인 항공국극장에 장식판을, 3비행사부인에 책을 진정, 암스트롱비행사는 월면에 남기고은 장식판의 복제를 유탄트사무총장에 진정하였다. 또 뉴욕시청에서 거행된 환영식장에서, 립지 시장이 "여태까지 뉴욕은 세계일주함해나 대양횡단을 한 사람들을 환영하여왔는데, 오늘은 지구와 단 천체사이에 최초의 다리를 건넌 3인에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라고 인사하고, 비행사들에게 메달을 진정하였다.

라성에서 대통령주최 만찬회

(라성 8월14일밤, 에이피) 뉴욕으로부터 공군1호기로 시카고에들어온 3비행사는 행진후, 데리 시카고시장으로부터 메달을받고, 오질비 이리노이주지사가 환영의 연설을하였다. "우주의 영웅을 출항한 사람들은 뉴욕에서 4백만명, 시카고에서 2백만명으로 추정되고있다. 환영은 라성의 사센트리.푸라자.호텔에서 거행되었다. 님슨대통령이 이 저녁을 주최하였다. 화려한 회장에 손 초대객은, 각도, 연방최고재판사, 주지사 50명중 44명, 83개국의 외교대표, 우주산업, 군 우주항공국관계자등 천4백40명, 7 코스의 저녁은 최고의 음식이었다. 님슨대통령은 3비행사에게 대해서 샴페인을들고, "우리는 당신들의 용기에 감사한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한계없이 하늘을 넘어서 진출한다" 라고 연설하였다. 암스트롱비행사는 다음과같이 답변하였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라고 쓴 기념판을 대통령각하로부터 부탁을받고, 답변에 노로온것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달비행이 실현된 이 시대는 역사에 남을것입니다"

님슨대통령은 암스트롱, 올드린, 코린스 3비행사에 민간인최고의 영예인 자유공로상을 수여 하였다. 또 67년 1월의 아폴로 화재사고로 손지한 코 루핀슨, 화이스, 재워3비행사와 11호의 월면착륙시, 파중부담이된 계산기가 위험신호를 내고있섯을때, 침착한 판단으로 "가라"는 지령을내린 26세의 관제관 벨시도 훈장을받았다. 루핀슨, 화이스양미망인은 죽은 남편을 대신 하여 훈장을 받았는데, 재혼한 재워미망인은 결석하였다. 호텔속이 축하일색으로 되어있을때 가로에서는 수천명의 비에르넴 반전시위대가 조용히 시위를 하고있었다.

개헌공고로 한국 긴장

(서울 8월11일밤 공동) 박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하는 한국의 헌법개정안이 드디어 9일 국회에서 발의후, 공포되었다. 이날 서울중심부 국회의사당주변에는 헬멧을 쓴 경찰기동대가 배치되어 긴장한 분위기를 이루었다. 시내에서는 아침부터 "박정권은 지금 하나의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국민은 단결하여 개헌운동에 봉쇄하자" 라고 쓴 선전문이 여기저기 뿌려졌다

(제3면에 계속)

(제2면으로부터 계속)

금주에는 야당 여당이 다 유실등으로 각각의 세론공작을 하여 대결하게되는데, 여당은 학생의 시위를 피하기 위해, 여름방학직구의 9월중순에 국회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미של 제한고섭이 세계 뉴스의 시점

(8월13일 공동통신) 8월15일의 기한을부치고 미국이 신청한 미של제한고섭에 소련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는 금주의 미.소관계를 차지하는 점이될것이다. 또 16일에는 인도 대통령 선거가 거행된다.

* 주목되는 소련의 회담...님슨대통령의 투마니아방문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투마니아국민이 님슨대통령에 보인 열광적인 환영은 미국민에 큰 감명을 주었는데, 소련은 이에 크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정세로 금주의 미.소관계가 어찌제되는가는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보이는데, 이를 결정하는 점은 미.소 미של제한고섭이다.

님슨대통령은 6월19일의 기자회견에서, 이고섭을 7월31일부터 8월15일까지사이에, 주네바 또는 윈에서 개시하겠다는것을 소련에 응조한것을 명백히하였다. 이에대해서 구롬미소소련외상은 7월10일의 최고회의에 서 소련에도 고섭을 개시할 용의가있다고말하였다. 이구롬미외상은 님슨대통령의 투마니아방문이 반포된후의 일이며, 미국은 소련이 결국은 이고섭에 응한다는 확신을하고있다. 그러나 님슨대통령의 투마니아방문이 예상이상의 파문을 일으키고, 소련이 투마니아에대한 취제를 강하게한다는 관측이있고, 또 소련이 투마니아방문에 상징되는 "닉슨 외교"에 경제심을 강하게하고있는데이때때문에, 과연 기한내에 고섭개시의 합의가될지는 의문시되고있다.

*인도대통령선거...16일에는 인도대통령선거가있다. 퇴코와 본설에 고민하는 국민회의파이기는 하나, 야당에 유력한 통일후보가 없기때문에, 금주의 선거에서는 회의파가 추천하는 산지바. 데디 하원의장의 당선이 확실시되고있다.

부순 대통령 신사회부사계획 권고 빈곤개급층에 노동의욕을 부여

(가주 사센.푸레멘데 8월11일밤, 에이피) 님슨대통령은 11일 국회에대해서 멧세지물보내고, 예산 40억불의 연방사회부사계획을 권고하였다. 내용의 일부는 이미 8일, 때이디오.레페비존에서의 대통령의 연설에서 명백히된것, 신계획은 (1) 수입증명을 기초로 생활호호비를 산출, 4인 가족으로 년간 천6백불을 최저기준으로한다. (2) 6억불의 추가예산으로 일하는 어머니를위해 유아원을 건설한다. (3) 생활보호의 대상자중 일할수있는자는 모두 취직등록내지 직업훈련소에 등록할것 등을 골자한것이다. 이에의해서 연행의 부사계획의 "큰 불곰평"에 종지부를 찍고, 빈곤개급층에 노동의욕을 주겠다는것이 님슨대통령의 부적이다. 수급자적은 수입증명을 기초로 판명되기때문에, 직업의 유무나 모자가정이라는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않는다. "모자가정이라는것은 만은 주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비행과 폭력을 나는 원인이되고있다" 라고 대통령멧세지는 설명하고있다. 또 평균급부액이 권고한보다 적은 주는 20주에 달한다고한다. 이 사회부사계획안에이어서 님슨대통령은 빈곤대책의 총본점인 경제기획국의 개조,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우리는 우주에서의 개척자가된것같이, 사회개조에서도 개척자가 되어야한다" 라고 호소하였다.

8월15일은 제24회 한국해방기념일



